

한국인 아동 영어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영어교육

심창용*

1. 서론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모국어 습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발달 단계가 있다는 풍부한 경험적인 증거들이 있다. 특히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보이는 발달 단계는 한국에서의 외국어로서의 영어 습득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흥미롭고 또한 영어교육에 대한 시사점이 많다. 본 연구는 제 8차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발달 단계가 한국에서의 영어교육, 특히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며, 이 결과가 영어교육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다음 장에서는 언어 습득과 관련하여 보편문법과 핵 계층 이론, 모국어 및 외국어 습득에서의 발달 단계를 논의한다. 제 3장에서는 신정선(2000, 2004)와 한혜령(2000)을 중심으로 한국인 아동 영어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제3장에서 논의된 발달 단계를 한국에서의 영어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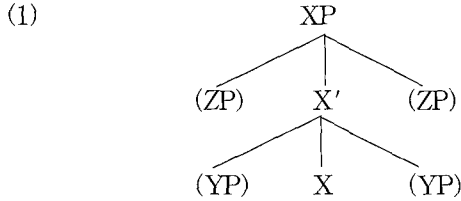
2. 언어 습득과 발달 단계

보편 문법 원리의 하나로 여겨지는 핵 계층 이론(X-bar theory)에 기반을 둔 기능 범주 습득 연구는 1970년대에 Baily, Madden & Krashen (1974), Dulay & Burt (1973, 1974), Larsen-Freeman (1976) 등에 의해서 연구되었던 형태소 습득(morpheme acquisition)이라는 기능 범주의 형태론적 실현과 관련된 현상들을 하나의 통합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였다.

핵 계층 이론은 (1)에 주어진 것과 같이, 모든 최대 투사 범주 XP는 X라는 핵과 보충어구 YP 및 지정어구 ZP를 가진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핵 선행 변인(Head-initial parameter)과 핵 후행 변인(Head-final parameter)에 따라 언어마다 유사하거나 상이한

*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소

어순을 가지게 한다.



예컨대 영어의 경우에는 핵이 보충어를 선행하고 지정어가 중간 투사 범주 X'를 선행하여, 주어-동사-목적어 (S-V-O)의 어순이 실현되지만, 한국어의 경우에는 지정어가 X'를 선행하는 것은 영어와 유사하나, 핵이 보충어를 후행하여 S-O-V의 어순을 보이게 된다.

문장 구조와 관련한 또 다른 중요한 가정은 문장 구성 성분이 크게 동사, 명사, 형용사 및 전치사를 포함하는 어휘 범주(lexical category)와 굴절소(INFL), 보문소(complementizer) 및 지시소(determiner)를 포함하는 기능범주(functional category)로 구분된다는 것이다(Chomsky 1986, Abney 1987 등). 이에 따르면 영어의 문장 구조는 (2) 주어진 것과 같다.

(2) [CP C [IP DP [I' INFL [VP V]]]]

(2)의 구조를 기반으로 모국어 및 외국어로서의 영어 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왔는데, 주된 논점은 기능 범주가 언어 습득의 초기 단계부터 존재하는가의 여부이다. Radford (1990, 1996)와 Vainikka (1993) 등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아동들이 굴절소 및 보문소가 없는 단계부터 시작하여 굴절소와 보문소를 차례로 습득한다고 주장한다.

(3) 구구조의 발달

VP ==> IP ==> CP

이와는 다르게 Hyams (1996), Wexler (1994), Phillips (1996) 등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아동의 발달 단계는 형태론적 제약(morphological constraints)이나 화용론적 제약(pragmatic constraints), 혹은 성숙 정도(maturation) 등의 요인에 의해서 표면화되지 않을 뿐이라고 설명한다.¹⁾

1)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는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및 카탈란어를 모국어로 하는 아동들

제 2 언어 습득과 관련하여서도 모국어 습득과 동일하게 동사구부터 습득을 시작한다는 입장(Vainikka & Young-Scholten 1992, 1994, 1996, 1998)과 기능 범주가 초기부터 존재한다는 입장(Eubank 1994, Laksmanan 1994, Schwartz & Sprouse 1996, White 1996 등)으로 나누는 데, 최근의 많은 연구 결과들은 후자를 지지하고 있다. 즉, 기능 범주의 존재는 굴절소나 이를 표시하는 형태소의 습득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며, 따라서 외국어 학습 초기에도 보편문법의 원리가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결과가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발달 단계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발달 단계

한국인 아동 영어 학습자들의 문장 구조 습득을 기능 범주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로는 신정선(2000, 2004), 한혜령(2000)을 들 수 있다. 신정선(2000) 및 한혜령(2000)에서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3)에 제시된 것과 유사하게 “어휘 단계(Word stage) -> S-be-X 단계 -> 동사구(VP) -> 굴절소구(IP) -> 보문소구(CP)”의 발달 단계를 거친다. “S-be-X 단계”에서 “S”는 주어이며, “X”는 주어와 “be”이외의 요소를 가리키며, 신정선(2000)에서 가져온 다음과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한다.

- (4) I'm Olympic Apartment
'I live in Olympic Apartment.'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be”를 신정선은 Huebner(1983)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모국어에서 전이된 주제 표시어(Topic marker/topic boundary marker)로 분석하고 있다.

동사구 단계에서는 “be”이외의 어휘적 동사가 사용되기 시작하며, 주어의 생략과 어순의 오류도 나타난다. 아래의 예는 한혜령에서 가져온 것이다.

- (5) a. Sally orange eat
b. no sandwich eat
'He doesn't eat sandwich.'

위의 예에서 동사에 굴절소가 나타나지 않고, 따라서 이를 동사구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단계에서 O-V 어순이 관찰되는데, 이는 핵 매개 변인이 아

에 있어서 언어 습득 초기 단계부터 굴절소가 나타나지 않는 비율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Guasti 1993, Guasti 1994, Torrens 1995).

직 영어의 값으로 고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외국어 습득자들이 습득초기부터 어순을 쉽게 습득하여 모국어의 전이나 오류를 보이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Clashen 1984, Vainikka & Young-Scholten 1992, Zobl 1989 등)와는 다른 결과이며, 신정선(2004)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보고하고 있다.

굴절소구 단계의 전형적인 특징은 (6)에 주어진 것처럼 “be”가 굴절소 위치에 나타나는 것으로, (7)의 예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신정선(2000, 2004)과 한혜령(2000)에 따르면, “be”의 주어와의 일치관계는 거의 오류가 없고,²⁾ 동사에 굴절소가 나타나지 않는다.³⁾ 다음의 예는 신정선(2004)에서 가져온 것이다.

- (6) a. I am like dog.
b. You are want pizza.
c. He is study English.

- (7) She likes subject, music.

보문소구의 습득은 의문문의 습득과 관계가 깊은 데, 조동사-주어 도치가 일어난 경우와 Wh-의문사 이동이 일어난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아래의 신정선의 예를 살펴보면 yes/no 의문문에서 조동사-주어 도치가 일어나며, 이때 조동사는 “be” 범주일 수도 있다. 또한 (8a)에서와 같이 조동사 복사 현상(auxiliary copying) 또한 관찰된다.

- (8) a. Is he is like English?
b. Are you have sister?
c. Do you like English?
d. Is he a student ?

Wh-의문문의 경우에는, (9a)에서와 같이, wh-의문사가 본래 생성된 자리에 머물러 있는 단계(Wh-in-situ stage)로부터 시작해서, (9b-c)에서처럼 wh-의문사만 문두에 위치하는 단계로 발달해간다. 이후의 단계에서 조동사-주어 도치가 이루어지는 데, 이때 (9d-e)에서처럼 “be”가 관여하거나 주어-동사 도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2) Kim, Jae-Hyuk (2003)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문을 보고하고 있는데, 그는 이를 공식어구(Formulaic expression)로 분석하고 있다.

3) 이 “be”의 성격과 관련하여 양현권(2001, 2002)에서는 미발달 굴절소로 보고 있고, 안성호(2003)에서는 주제 표시어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be”가 모국어로부터 비롯된다고 보고 있으나, Ionin & Wexler(2001)는 영어의 형태론적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이때의 “be”는 “S-be-X 단계”의 “be”와 성격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 (9) a. Grandma makes what?
- b. What grandma make(s)?
- c. What grandma is make?
- d. What is grandma make?
- e. What makes grandma?
- f. What does grandma make?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인 아동 영어학습자들은 여러 발달 단계를 보이며 영어를 습득해간다. 이러한 발달 단계가 한국에서의 영어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지를 다음 장에서 논의한다.

4. 발달 단계와 영어교육

한국 상황에서의 영어교육은 외국어로서의 언어교육에 해당한다. 즉, 주된 언어입력이 교과서와 교사에 혹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사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별개로 한다면, 영어 교과서와 영어 교사 모두에게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발달 단계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교과서는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Krashen(1987) 등이 주장하는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의 측면에서 학습자들에게 제시되는 구문은 학습자들이 보일 S-be-X 단계 -> 동사구(VP) -> 굴절소구(IP) -> 보문소구(CP)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학습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잃지 않을 것이다.

손장진(2001)에 따르면 전주시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어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4학년생들이 3학년생들보다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영어에 대한 흥미도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혜련 (1998), Lee & Park(2001), 박약우 외 3(2001), 김재혁 (2002) 등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김재혁은 고학년일수록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가 어렵고 실용성이 떨어지고, 교과서가 재미없다는 것이 가장요인 등과 더불어 영어에 대한 흥미를 저하시키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수준별 학습은 제 8차 교육과정 고시안에서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학습과 협력 학습을 한다”, “보충학습과 심화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별 교재, 학습 자료 및 수업방법을 구안한다”, “다양한 심화·보충 자료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능력에 맞게 제공하고”의

문구로 유지되고 있는 바, 이는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른 적절한 언어 입력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발달 단계를 지나치게 넘어서는 수업 자료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저하시킬 뿐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수준별/발달 단계별 학습 자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 양성과 관련하여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그 특징의 중요성은 아주 크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 발달 단계별 교육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인은 교사이다. 따라서 교실 수업을 담당할 예비 교원들에게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의 발달 단계 및 각 단계별 특징을 교육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영어교육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교사는 학습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 촉진자이고, 학습자가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조직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Harmer 2001).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이 의사 소통 능력을 중시한다면 교사중심의 학습 지도보다는 학생 활동 중심의 지도로 수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자연적인 습득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박광노(2005)의 초등학교 영어 수업에서의 학생의 발화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교사에 의해서 촉발된 타의적인 발화가 97.66%에 이르며, 교사와 학생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거의 없고, 교사의 발화를 따라 한다든지,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영어학습자가 교실에서 다른 내용을 습득하지 못하고 단지 지식으로 머물게 하는 요인이 되며, 따라서 학습자가 유의미한 의사소통을 위해 발화를 할 때까지 발달 단계를 지체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때 학생들의 발화에서 드러나는 개인별 발달 단계를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어야 한다. 즉 학생들의 발화상의 오류가 발달 단계에 따르는 것이면 이를 적절히 용인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교사들에 대해 영어과 교원양성기관에서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발달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현직 교사의 경우 교사 연수 등을 통해서 발달 과정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계속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5. 맺음말

우리나라 상황에서의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발달 단계에 대한 연구는 신정선(2000), 한혜령(2000)을 시작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여 점점 더 많은 연구들이 행하여지고 있다. 이들 두 연구자들이 밝혀낸 발달 단계는 한국 상황에서의 영어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영어 교과서 및 교재, 그리고 영어 교사 모두에게 매우 크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Abney, S. (1987). *The English Noun Phrase in its Sentential Aspect*. Doctoral Dissertation. MIT.
- Ahn, S-h. (2003). A Note on the Topic-Comment Stage in Korean EFL Syntactic Development.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3. 2. 369-382.
- Baily, N., Madden, C., & Krashen, S. (1974). Is there a natural sequence in adult secon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21. 235-243.
- Chomsky, N. (1986). *Knowledge of language*. New York: Praeger.
- Clashen, H. (1984). The acquisition of German order: A test case for cognitive approaches to L2 development. In R. Anderson (ed.) *Second Language: Across linguistic perspective*. 219-242. Rowley, MA: Newbury House.
- Dulay, H. and M. Burt. (1973). Should we teach children syntax? *Language Learning* 23, 245-57.
- Eubank, L. (1994). Optimality and the initial state in L2 development. In T. Hoekstra & B. D. Schwartz. (Eds.), *Language acquisitio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369-388. Amsterdam: Benjamins.
- Guasti, M.T. (1993). Verb syntax in Italian child grammar: Finite and non-finite verbs. *Language Acquisition* 3, 1-40.
- Hahn, H.-r. (2000). *UG Availability to Korean EFL Learners: A Longitudinal Study of Different Age Groups*.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Harmer, J. (2001). *The practice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3rd ed.). Edinburgh Gate, England: Pearson Education Limited.
- Huebner, T. (1983).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acquisition of English*. Karoma Publishers, Ann Arbor.
- Hyams, N. (1992). On the genesis of clausal structure. In J. Meisel, (ed.) *The Acquisition of Verb Placement, V2, and Functional Categorie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Hyams, N. (1996). The underspecification of functional categories in early grammar. In H. Clahsen, (ed.) *Generative Perspectives on Language Acquisition-Empirical Findings,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Crosslinguistic Comparisons*, Amsterdam, John Benjamins.
- Ionin, T. and K. Wexler. (2001). L1-Russian children learning English: Tense and overgeneration of 'be'. In *Proceedings of the 2000 Second Language Research*

- Forum. Cascadilla Press: 76-94.
- Kim, J.-h. (2003). Language development of a Korean ESL child: A case study. *초등영어 교육* 9권 1호, 199-224.
- Krashen, S. (1979). The Monitor Model for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R. Gingras (e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Foreign Language Teaching*. CAL
- Lakshmanan, U. (1998). Functional categories and related mechanisms in chil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F. Flynn, G. Martohardjono & W. O'Neil (eds.) *The generative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3-16.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Larsen-Freeman, D. (1976). An explanation for the morpheme acquisition order of second language learners. *Language Learning* 26. 125-134.
- Lee, H. & Park, M. (2001). A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English program in Korea. *English Teaching* 56(1), 53-80.
- Phillips, C. (1996). Root infinitives are finite. In *Proceedings of the 20th Annual Boston University Conference on Language Development*, 588-599.
- Radford, A. (1990). *Syntactic theory and the acquisition of English syntax*. Oxford: Blackwell. .
- Radford, A. (1996). Toward a structure-building model of acquisition. In H. Clahsen (ed.) *Generative perspectives on language acquisition*. 43-90. Amsterdam: John Benjamins.
- Schwartz, B., & Sprouse, R. (1996). L2 cognitive states and the full transfer/full access model. *Second Language Research* 12, 40-72.
- Shin, J.-s. (2000). *Functional Category Acquisition by Korean EFL Learners: The Role of UG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Torrens, V. (1995). The acquisition of inflection in Spanish and Catalan. In C. T. Schute, J.B. Ganger, & K. Broihier (eds.), *Papers of language processing and acquisition*.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26. Cambridge, Mass:MIT, MITWPL.
- Vainikka, A. (1993). Case in the development of English syntax. *Language Acquisition* 3. 257-325.
- Vainikka, A., & Young-Scholten, M. (1992).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projections in L2 syntax. Paper presented in LSA annual meeting. Philadelphia.
- Vainikka, A., & Young-Scholten, M. (1994). Direct access to X¹-theory: Evidence from Korean and Turkish adults learning German. In T. Hoekstra & B. D. Schwartz.

- (Eds.), *Language acquisitio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65-316. Amsterdam: Benjamins.
- Vainikka, A., & Young-Scholten, M. (1996). Gradual development of L2 phrase structure. *Second Language Research*, 12, 7-39.
- Vainikka, A., & Young-Scholten, M. (1998). The initial state in the L2 acquisition of phrase structure. In F. Flynn, G. Martohardjono & W. O'Neil (eds.) *The generative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7-34.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Wexler, K. (1994). Finiteness and head movement in early child grammars. In D. Lightfoot & N. Hornstein, (eds.) *Verb Move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05-350.
- White, L. (1996). Universal grammar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urrent trends and new direction. In W. Ritchie & T. Bhatia (eds.)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85-120. NY: Academic Press.
- Zobl, H. and Liceras, J. (1994). Review Article: functional categories and acquisition orders. *Language Learning* 44, 159-180.
- 교육부 (1997).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V), 영어.
- 교육부 (2006). 영어과 교육과정 수정 고시. (<http://cutis.moe.go.kr>)
- 김재혁 (2002). 초등학교 아동의 영어 선호도 분석 연구. *초등영어교육* 8권 1호, 37-65.
- 김혜련 (1998). 초등영어 교재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 조사. *Foreign Language Education* 4, 5-22.
- 박광노 (2005).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나타난 초등학생의 영어 발화 분석. *초등영어교육* 11권 1호, 157-184.
- 박약우, 박기화, 최진화, 이소영 (2001). 초·중등영어교육의 연계방안 연구. *초등영어교육* 7권 1호, 5-42.
- 손장진 (2001).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연구. *현대영미어문학회* 19권 3호.
- 신정선 (2004). 한국인 아동의 영어 굴절소구 습득 연구. *초등영어교육* 10권 1호, 67-100.
- 양현권 (2001).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be'의 범주적 특성. *영어학* 1권 1호, 59-79.
- 양현권 (2002).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굴절 자질 습득. *영어학* 2권 1호, 227-248.

<Abstract>

Developmental Stages of Korean Child EFL Learners and English Language Education

Sim, Chang-Yong*

This paper presents the developmental stages of Korean EFL learners, based on Shin (2000, 2004) and Hahn (2000). It is important for those who develop the textbook and those who (will) teach English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al stages, since it provides a foundation for the individualized, student-centered education, and encourages the students to keep their interest in English.

* Research Institute of Education, SNU